

'다시 돌아온 KTX' ...장성군 재정차 축하 분주

16일 농악·난타공연 흥 돋워
오전 6시 첫 승·하차 객 축하
박 터뜨리기 등 이벤트 '풍성'

장성군이 4년여 만에 재개되는 고속열차(KTX) 운행에 맞춰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준비하느라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장성군은 오는 16일 재개되는 KTX 장성역 정차를 기념하기 위해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축하행사는 16일 오전 6시 KTX에 처음으로 승·하차하는 승객에게 축하의 옐로우 장미와 황금떡, 황금음료를 전달하는 '승객 축하 이벤트'로 시작된다.

오전 11시에는 본격적인 기념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농악 및 난타공연이 열려 주무대인 장성역 광장의 흥을 돋워준다.

기념행사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준성 영광군수 등 인근 지자체장 및 다수의 내외 인사를 비롯해 유두석 장성군수와 1천여



4년 만의 운행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장성역에 정차한 KTX.

명의 장성군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장성역 KTX 재정차 추진의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등에 이어 KTX 재정차를 환영하는 의미의 '박 터뜨리기' 행사와 삼무대 군악대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첫 번째 KTX 하행선이 정차하는 낮 12시 20분 무렵, 농악팀의 흥겨운 연주에 맞

춰 다시 한번 승하차 승객 환영 이벤트를 가진 뒤 행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유 군수는 "장성역 KTX 재정차는 5만 군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이며, 장성군 역사에 '거버넌스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경사"라며 "이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X는 16일부터 하루 4차례 장성역에 정차한다. 정차시간은 목포행 낮 12시 20분, 오후 7시 55분, 서울 용산행 오전 6시 29분, 오후 5시 42분이다.

'용산~목포 구간'의 운행이 재개되면 '용산~오송~서대전~익산~장성~광주~동~목포' 순으로 열차가 정차하게 된다.

장성=최용기기자 young671221@srb.co.kr

나주 대호수변공원에서 13일 '가요콘서트'

나주시가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가족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5시부터 대호수변공원에서 '2019 추석맞이 가요콘서트'가 열린다. 이어 14일부터 15일 양일 간 금성관 동의헌에서는 '신나는 전래놀이 판'이 개최된다.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나주지회가 주관하는 가요콘서트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현장 참가 접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풍성한 시상금과 노라, 유연주, 문규리, 신승호 등 지역 가수들이 총출동해 흥겨운 명절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금성관 동의헌에서 펼쳐지는 전래놀이 행사는 '수박치기', '나비고누', '골매놀이' 등 다채로운 전래놀이가 마련된다.

특히 전래놀이문화연구원 '술래'의 전래놀이 지도자들이 전통 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온 가족이 함께 건전한 놀이를 즐기면서 한기위의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 가족들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고향의 향수와 정취, 신명나는 추석을 맞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진수기자 suk1586@srb.co.kr

목포시, 도서지역에 LPG 운송 지원

도서주민들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었던 생활연료 수급이 한결 편해진다.

목포시(시장 김종식·사진)는 도서주민들이 생활연료로 사용하는 LPG 가스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일괄구입한 후 민간화물선을 임대,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해상운송법이 개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또 지역 연료 판매조합과 협약을 체결, 도서지역도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5일 부터 화물선 운항을 통한 생활연료 공급을 시작했으며, 분기별 정기운항을 통해 연 4회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촌누딜 300사업 등 도서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백병기기자 mspark214@srb.co.kr

"서남해안 갯벌 한눈에"...신안 '무한의 다리' 개설

자은 둔장해변~할미도 1004m 연결
19일 개통식...갯벌여행의 명소 기대

차를 타고 떠나는 신안의 천사대교 여행길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겼다.

신안군은 오는 19일 오후 자은면 둔장해변에서 '무한의 다리' 개통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자은 둔장해변에서 구리도~고도~할미

도를 잇는 보행교인 '무한의 다리'는 길이 1004m, 폭 2m로 지난 2018에 착공해 51억원이 투입됐다.

'무한의 다리' 이름은 무한대(∞)를 내포하는 8월8일 섬의 날을 기념하고 섬과 섬이 다리교로 연결돼 있는 연속성과 끝없는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1도(鳥) 1뮤지움' 아트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대표 조각가 박은선 작

가와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 거장 마리오보타가 직접 이름을 붙였다.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을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가 새롭게 개설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신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자은 해넘이길 12km 구간이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해안누리길에 선정됐다"며 "새롭게 개설된 무한의 다리와 연계하면 걷기 여행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일부터 다리를 임시 개통한 데 이어 할미도에 산책로와 전망대를 개설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신안=박기욱기자 pkw4803@srb.co.kr



신안군 자은도 둔장해변에서 구리도-고도-할미도를 잇는 보행교인 '무한의 다리'.

청정햇살 담은 '가을 포도' 본격 출하

강진군, 신품종 '샤인머스켓' 육성

청정지역 강진군에서 자란 가을 제철 과일인 '포도'가 무르익어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과일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포도는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효능은 물론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으로 골밀도를 높여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매우 좋다.

강진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지역인 장점을 이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보급 확대 및 관련 재배기술과 시설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 11농가가 총 4.5ha에서 캠펠열리, 거봉 등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작은 면적이지만 기술교육 등 농가들의

양한 노력과 함께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품종은 샤인머스켓 포도이다. 당초 도암면에서 1농가가 시설하우스 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던 것을 최근 군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확대되며 성전면 등 5농가에서 2ha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2~3년 후부터 본격적인 수확과 함께 소득을 창출할 전망이다.

샤인머스켓은 일명 망고 포도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포도보다 알이 굵고 당도가 높고 씨가 없어 껍질째 먹는 청포도이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최근 동남아, 중국 시장에 진출해 수출 주력 포도로 부상하며 국내 외에서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등 포도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강진=김원준기자 jun097714@srb.co.kr



강진 도암면 만덕리 한 포도재배농가에서 한창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법...토하가 돌아왔다"

영암군 학산면에서 21일 토하축제

벌는 생태탐방·전래놀이 등 다채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생태계가 복원돼 사라졌던 토하가 돌아온 영암군 학산면에서 '유기농·토하 축제'가 열린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학산초등학교 인근 유기농 벼논과 하천 일원에서 오는 21일 '청정 학산천으로 새비잡으러 가세'란 주제로 유기농·토하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친환경 유기농 벼농사를 짓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유기농&토하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민간주도형 축제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

지난 2015년 가을,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학산천에서 토하잡이를 했던 것을 계기로 시작된 축제는 2017년부터 영암군 후원을 받아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 마을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를 통해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건강한 농산물을 알리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유기농 벼논과 학산천에서 토하 등 각종 서식물을 잡는 생태탐방과 자연환경 사진전 등 친환경농업을 통해 살아나고 있는 생태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학산천에서 잡은 토하로 만든 젓갈과 지



지난해 개최된 유기농&토하축제.

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들을 홍보·판매하는 장터를 운영하고 농경민화를 느낄 수 있는 전래놀이, 타작마당, 떡매치기 등 다양한 전통체험을 진행한다.

마을주민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노래자랑 한마당을 운영하는 등 한층 더 프로그램이 풍성해진다.

최영만 토하축제 위원장은 "친환경 유기농을 통해 고품질의 유기농 쌀 생산뿐만 아니라 벼논과 하천에 투구새우와 토하가 돌아올 수 있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환경보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축제는 지역 농민들이 고생해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된 영암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김철진기자 kc7146@srb.co.kr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100억원 돌파

해남군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해남사랑상품권 판매가 100억원을 돌파했다.

해남군은 지난 4월 17일 발행한 해남사랑상품권의 판매액이 지난 6일 현재 107억6천956만5천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매자별 판매현황은 정책발행 및 공직자 상품권 구매 4억 3천200만원, 농민수당 77억원, 유관기관 및 단체 1억3천 733만원, 기업체 1억172만원, 개인구매가 2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농민수당 지원제도를 통해 77억원 상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선진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에 유통돼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100억원 규모의 현금시장을 형성하며,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경기부양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적극 나서 지금까지 관내 2천243개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군은 기관·단체·기업체 등의 해남사랑상품권 10억원 판매 구매릴레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모아나갈 방침이다.

해남=백병기기자 md181@srb.co.kr

진도 다시래기 소재 영화 제작 돌입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된 '진도 다시래기'가 영화로 제작된다.

10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 다시래기'를 소재로 한 영화 '매미소리'가 지난달 대본 리딩 등을 끝낸 데 이어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갔다.

'매미소리'는 '워낭소리'의 성공 이후 투병 생활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오던 이충렬 감독이 10여 년간 집필한 작품이다.

이 감독은 2009년 누적 관람객수 293만 4천 883명(영화진흥위원회 추산)을 기록하며 '워낭소리'의 신드롬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영화는 진도지역에서 부모상을 당한 상주와 유족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위로하기 위해 벌이는 상여놀이인 다시래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되기 위해 가족까지 외면하는 고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한 원망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가득 찬 딸 간의 갈등과 해소를 그리고 있다.

영화는 전체 촬영 일정의 95%를 진도군 세포 세트장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에서 진행하고, 진도 곳곳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무형문화재 등을 재조명한다.

진도=백병기기자 hm3753@srb.co.kr